

어린이의 탄생

세상에서 어린이의 탄생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의 탄생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 부부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라마다 어린이가 탄생했을 때의 풍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이가 태어나면 집의 문에 고추와 숯을 새끼줄로 묶어 달았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아이가 태어난 집은 아무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여자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부끄러웠고, 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구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옛날의 풍습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아기를 출산한 여성은 산후조리를 할 때 대부분의 산모와 아기는 친정집에서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였습니다만, 요즘은 집보다 훨씬 편리하게 되어 있는 시설에서 현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한국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1살이 됩니다. 1999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어린이는 2000년 1월 1일에는 2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인의 나이는 지금의 나이에서 한살을 뺀 나이가 진짜 나이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린이의 탄생”은 이정도입니다. 나라마다 여러가지의 풍습이 있겠지만 모릅니다만 공통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통점은 태어나는 어린이는 모두가 소중한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